

서울

구민신문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5면)



송파구의회 '송파문화예술관광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문화·예술·관광 연계한 송파구 미래 성장전략 및 정책방안 모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문화예술관광도시연구회'(회장 김성호)는 지난 7 일(수)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관광도시 송파 미래 성장전략 및 통합 정책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융합관광연구소가 연구의 추진방향과 수행방법,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고, 이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송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 회원인 손병화 의장도 이날 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이번 연구는 송파의 문화·예술·관광 정책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도시 브랜드로 연결할 중장기 성장전

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연구과제는 ▲문화·예술·관광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핵심 관광자원 간 연계 및 활용 ▲대표 축제 및 야간경제 활성화 ▲송파문화재단 기능 및 운영체계 개선 ▲문화예술관광 관련 기본계획 및 조례 개선 등이다.

특히 잠실관광특구와 한성백제문화유산,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주요 자원 간 연계방안을 살펴보고,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제·야간관광 콘텐츠와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오는 12월까지 현장 조사와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

행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회장은 "송파는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는 각각의 자원을 넘어 서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송파의 특성을 살린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문화와 예술, 관광이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김성호 회장과 이원우 부회장, 손병화 의장을 비롯해 박인섭, 전정, 최상진, 이혜숙, 이강무, 박순옥, 지정수, 유미현, 김서윤, 박지효, 강정선, 김언주 의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